

한라포커스 |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국비지원 규모 확정

절반의 성공... 주민 반발 해소 '과제'

기재부, 재정투자액 제외한 사업비 1865억원 지원
'에타' 면제 따른 전액지원 무산... 50% 도비 부담
1일 처리량 9만t 증설... 시설 지하화·지상은 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 186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른 전액 국비지원을 기대했던 제주도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지원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총사업비 3886억원 중 원인자 부담금 156억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액의 50%인 1865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당초 국비지원 규모는 추가로 증설되는 9만t에 대한 절반 수준인

954억원에 대해서만 지원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도내 하수발생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은 1993년 준공된 이후 노후화하고,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하수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란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대를 얻어냄으로써 지난 1월 '에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총 재정투자액(3730억원)의 50%를 지원받게 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때문에 "본래 전액 받기로 했다가 반쪽짜리가 된 것이 아니냐. 다른 지자체들이 에타면제 사업 규모와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철도사업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금액인데 반해 제주의 이번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는 얘기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7개년 동안 3886억원(도비 50%)의 사업비를 투자해 1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하고, 침사지·침전지·슬러지시설·해양방류관 등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 및 지상의 공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사업계획적정성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사업계획 고시·기본계획 용역 시행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되며, 착공은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절반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숨통은 트이게 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앞으로 도정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제주자치도는 2013년부터 120억

원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정작 하수 처리장과 공장 인접한 마을 주민들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없는 현대화 사업 추진은 반대한다. 주민 공청회도 없는 사업이 어디에 있나. 제주도에서는 협의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협의가 됐는지 묻고 싶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추진위원회와 행정, 전문가들이 매월 정례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실시절계를 할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확보라는 첫 관문을 넘어선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여부가 판가를 날 전망이다.

조상윤기자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성료'

15~18일 일산 킨텍스서 진행
국내의 관광콘텐츠 등 선보여
제주자치도, '최우수상' 영예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객과 참여 지자체·기업의 호응 속에 18일 나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5면
15일부터 1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여행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17개 시·도 내 지역별 관광명소와 인도네시아, 중국, 스리랑카 등의 다양한 여행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경색으로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관광업체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도 이번 박람회에 참가해 제주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제주도는 박람회 개막사를 짚은 17일 시상식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는 하반기에 진행되는 다양한 제주도 축제에 대한 안내 및 제주 관광지 소개와 함께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등 다방면으로 제주를 홍보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부미현기자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관광·건설·민생 등 5개 분야
'활성화 실천과제' 발굴·선정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국내·외 경기둔화 장기화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실천과제 발굴·선정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내외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에 기초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기 위해 관광을 비롯한 건설, 1차산업, 미래산업, 민생경제 분야 등 5개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정책 실천과제를 발굴, 선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제주연구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중사자(전문가) 토론을 진행해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전문가 토론은 5개 분야·28명으로 구성돼 현재까지 분야별 2~3회 토론을 거쳐 과제 발굴 논의를 진행했으며, 8월말까지 과제 발굴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들 과제는 9월중에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내년 사업반영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또 실국에서도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경제정책 실천과제 발굴·선정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변화하는 경제여건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신규과제 발굴과 더불어 기존사업의 확장·개선·지속 추진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도는 전문가 발굴과제, 실국별 발굴과제 등에 대해서는 9월중 2020년 경제정책실천과제 발굴토론회를 거쳐 1차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2020년 예산편성과정을 거쳐 12월말 경제정책자문회의에서 최종 실천과제로 선정할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 12면 출산 축하 /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첫 게재

농작물 폭염·가뭄 대응체계 본격 가동 도, 기관별 역할·공조 강화

농작물의 가뭄피해가 우려되면서 본격적인 대응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적 가뭄 대응 태세를 갖추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태풍 '다나스' 이후 폭염을 동반한 지속적인 가뭄은 제9호 태풍 '레끼마', 제10호 태풍 '크로사' 영향으로 단비가 내려 가뭄에 대한 부분적 해소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구좌읍 당근 파종 지역은 간헐적 강우로 받아낸 당근이 폭염을 동반한 가뭄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양매추, 브로콜리, 콜라비 등도 오는 2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식이 이뤄지고 정식후 활착할 때까지는 물을 많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벌초 시작
17일 제주시 공설공원묘지에서 성묘객이 명발을 이겨내며 조상묘를 벌초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해 친척들이 모두 모여 조상의 묘를 함께 벌초하며 음덕을 기리는 '모듬벌초'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상국수습기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 공급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앞서 지난 16일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협, 한국농어촌

공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농작물 가뭄해제 총체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농작물

가뭄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각 기관들의 역할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NH 농心を 가슴에 안고 農民 곁으로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74주년

감귤수확등 농촌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업인은 신청하세요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농협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 5월부터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는 가을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인력 필요농가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께서는 가까운 농·감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8. 19 ~ 8. 30 (영농인력 고용기간은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 신청장소 : 조합원으로 가입된 농·감협(지도팀)

■ 영농작업 : 감귤수확·선과 등의 농작업 ※ 일당은 농가에서 지급(중식제공 포함)

■ 알선인력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가 도내·외에서 모집하여 농가에 알선

■ 지원사항 : 육지부 인력을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알선 받아 영농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 숙식제공 보조 : 영농인력 1인당 1일 15,000원 지급(4인 1조 60,000원)

· 상해보험 가입 : 고용인력이 농작업 중 부상 등 사고 시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가입

※ 육지부 인력인 경우 왕복 항공료(실비) 지원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농협운영협의회 회장 유봉성

농협서귀포시지부 지부장 고석찬

대정농업협동조합 이창철	안덕농업협동조합 유봉성	중문농업협동조합 김성범	서귀포농업협동조합 현영택	효돈농업협동조합 백성익
위미농업협동조합 김영근	남원농업협동조합 김문일	표선농업협동조합 고철민	상산일출농업협동조합 강석보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김용관